

영업비밀에서 '비밀성'의 의미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현대사회에서 '영업비밀'은 회사경영의 핵심적 전략요소다. 최근 인도 정부가 애플, 삼성 등의 제조사에게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우리가 영업비밀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과 별개로 영업비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막연하게 '회사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영업상의 정보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영업비밀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확인해 봐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은 다른 말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비밀관리성)' 등으로 불린다.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지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 '비밀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다.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성' 즉,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영업비밀의 개념상 당연한 요건일지도 모르는데, 기업 스스로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의 요건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완화돼 왔다. 당초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 부분마저 삭제함으로써 비밀 관리의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즉,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만 했다면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있고, 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이 애초에 추상적인 불확정 개념으로서 기업 실무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스타트업 등이 영업비밀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한 개정으로 평가된다.

어떤 경우에 기업이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들(과거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던 경우의 판례들을 포함)을 보면 ▲보안관리규정 등의 존재 ▲출입카드 등 통제장치 ▲금지구역, 대외비 등의 표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존재 여부 ▲비밀유지학약서의 작성 여부 등이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단식투쟁



기자 수첩

서예진
(정치부)

투쟁 현장에서 '단식'은 최후의 방법으로 쓰인다. 약자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달지 않을 때, 목소리가 들려도 강자들이 듣지 않을 때다. 단식은 제도와 권력, 발언권을 갖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극단적인 의사표현'이다. 그래서 단식투쟁을 하는 이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래 전 단식투쟁을 하던 세월호 유족 앞에서 일명 '폭식'을 한 이들이 비판을 받은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모든 단식을 같은 공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까. 국회, 그리고 상당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점유하는 정치 세력이 단식을 선택한다면 말이다.

야당이 뭔가를 얻고 싶다면 여당에게 협상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은 협상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화를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다.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당대표가 단식에 나섰다. 이번엔 이유가 '독재 타도'거나 '국정조사', '야당과의 대화 촉구'가 아니다. '통일교-공천현금 특검법'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질 시간은 사라진다. 논리적인 협상은 사라지고, '누가 더 고통받고 있나'라는 문제만 부각된다.

흔히 보는 투쟁 현장에서의 단식은 '출구 전략'이 없다. 약자들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라서다. 약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단식은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 단식'은 출구 전략을 세워놓는다. 이번 단식도 마찬가지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여권이 특검법을 받아들이 수도 있고, 상응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

다. 그리고 '의료진 권고'를 통해 단식을 멈출 수도 있다. 이것만 봐도 통상의 '단식투쟁'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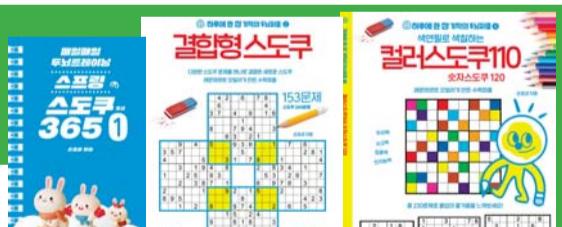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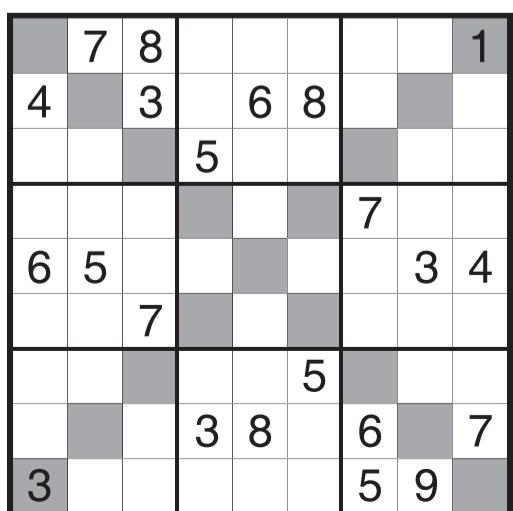
문제는 이런 형태의 단식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논의 자체를 중단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통일교-공천현금 특검법'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질 시간은 사라진다. 논리적인 협상은 사라지고, '누가 더 고통받고 있나'라는 문제만 부각된다.

단식은 약자의 수단일 때만 의미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단식을 택한다면,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여러 카드 중 하나로 전락한다. 단식이라는 투쟁 행위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유'를 내세운 단식 투쟁을 보고 싶지 않다.

/sy@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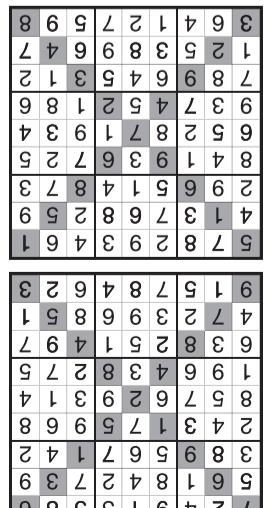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민지도의 웹드메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도서



오늘의 운세

1월 19일 (음 12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황제 운으로 구리가 황금으로 변하는 날. 48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 내어 일을 추진하자. 60년생 불평불만으로 애정에 금이 간다. 72년생 연인 사이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려 한다. 84년생 불안과 초조하니 건강 검사해보자.



37년생 소형아파트를 소자본 투자로 이득이 생긴다. 49년생 다음 주에 이사 수가 온다. 61년생 어렵던 금전 문제가 풀림. 73년생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밥값에 인색하지 마라. 85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3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땅 것 같으나 자중할 때. 50년생 멀리서 반기운 친구가 찾아온다. 62년생 아직보다는 부족한 공부를 하라. 74년생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86년생 쉽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39년생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신용에서 나온다. 51년생 노력을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63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75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데. 8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40년생 성정껏 기도하면 애를 면한다. 52년생 아침부터 귀한 별이 찾아온다. 64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76년생 투자는 낭패하니 한발 양보해서 저축하는 것으로. 88년생 동남방에서 귀인이 돋고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41년생 애정문제의 시끄러움이 예상되니 삼각관계 조심하라. 53년생 봄바람이 불어 오니 마음이 상승생. 65년생 오후에 에너지를 축적. 77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현재를 소중히. 89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42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54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6년생 새로운 계획이 오늘부터 한 단계 발전을 이룬다. 78년생 아침부터 만사형통하는 일진. 90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43년생 현명한 아랫사람이 밭쳐주니 손발이 척척. 55년생 영뚱한 자출이 발생하나 투자한 것에서는 이득. 67년생 화합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79년생 열색을 자꾸 잊어버린다. 91년생 아직 때가 있으니 사랑도 우정도 부담스럽다.



44년생 금전의 자출이 많아지니 주머니에 열쇠를. 56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직장도 평안. 68년생 동쪽만 피하고 움직이며 기쁜 일. 80년생 아침에 까치가 울고 직장에서는 경사가 생긴다. 92년생 시기 질투는 이별 수를 초래하니 참도록 해야.



45년생 지나치게 자존심 내세우다 편집만. 57년생 다워로 인해 작은 일에 짜증 나니 주의. 69년생 바쁘게 다니면서 계획한 일 완성하는 날. 81년생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는 힘만 빼진다. 93년생 일의 선택이 두바뀌는 시기이니 침착하게.



46년생 에디슨처럼 확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58년생 일자리는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에서 찾다. 70년생 날씨 뒷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으라. 82년생 돈을 사랑으로 대하보라. 94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4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9년생 운전조심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거늘. 71년생 업무적으로나 따라오려면 다들 멀었다. 83년생 운세가 대길하여 범사가 이루어진다. 95년생 정식이 아닌 순진하게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식신의 복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속담이 있듯이 오복에는 장수와 재물복 건강복 등이 포함되지만, 식복食福은 두루두루 통하는 복이다.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으며, 세상을 사는 즐거움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음식솜씨 좋은 여자는 소박도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다. 그래서인지 사주 일간에 대한 월지의 격을 볼 때 식신격인 여자는 음식솜씨가 좋다. 대중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데도 손맛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식신격은 남편들과 사이가 편안함을 본다. 혹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없다 할 순 없어도 이혼으로 가는 일을 거의 보지 못했다. 언제부턴가 공영방송은 물론 케이블방송에서 조차 유명 쇼프가 출연하여 이런저런 음식 조리법을 시연하기도 하고 요리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곤 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사주에서 食神은 내가 生하는 五行이다. 食神은 음식과 언변의 신으로 재財를 생하며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는 길신인데, 희신과 용신으로 작용할 경우 대체로 익식주가 풍부하고 복록과 재물이 윤택하다. 신체적으로는 살이 좀 찐 경우로서 풍만하고 후덕해 보이는 외모의 특징을 갖는다. 성격도 명랑하고 별걱정이 없어 보이고 재財까지 공존하면 요식업이나 식품사업을 통해 부와 이름을 날리는 경우가 많고 음식솜씨도 뛰어난 것은 전술한 바다. 그러나 지나치게 식신의 기운이 과다하면 당주의 기운을 설기 시켜 몸이 허약하고, 식복조차 없는 곤궁함을 겪기도 한다. 때로는 가무와 쾌락에 빠지기도 하므로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본다. 부족한 것보다 지나친 것이 더 문제가 되니 많이 먹으면 위와 장이 탈이 나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적당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8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93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